

삼진제약 항에이즈 신물질 '피리미딘디온'(에이즈 예방 외용제 : 겔) 남성들에게 더 효과

여성들이 에이즈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방용 외용 항바이러스 제제(Microbicides)가 오히려 남성들에게 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 데비즈 윌슨박사와 캘리포니아대학 셀러 블로어 박사는 '국가과학아카데미과성'에 발표한 논문에서 "역설적이게도 여성들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외용 항바이러스제제 남성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다"며 "외용 항바이러스 제제는 섹스를 통해 에이즈를 유발시키는 인간 면역결핍바이러스가 질이나 직장을 통해 감염되는 것을 예방한다"고 주장했다.

이 물질은 임상시험중인 것은 있으나 시중에는 아직 발매되지 않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글리어드사의 '테노포비어(Tenofovir 상품명:Viread)'라는 약물을 사용한 겔이 안전하고 쉽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약물이 여성의 질벽을 통해 신체로 침투해 들어가 에이즈바이러스를 변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삼진제약의 항에이즈 신물질인 '피리미딘디온'이 국제학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에이즈 바이러스가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였고 여성 성매개 감염 차단을 위한 국소용 외용제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에이즈 치료제는 역전사효소 억제 작용을 하는 미국 BMS와 머크사의 '짜스티바'와 바이러스 차단제인 로슈의 '퓨제온'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피리미딘디온은 역전사효소 억제제와 바이러스 숙주세포내 진입억제 기능을 동시에 갖는 최초의 신물질로 알려져 기대가 크다.

(헬스코리아뉴스 : 2008.07.08)

美 전체 에이즈 감염자중 흑인이 46%

미국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흑인이 지난 2006년 미국 내 에이즈 감염자의 4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현지시간) CBS뉴스가 보도했다. 특히 젊은 흑인층의 에이즈 감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

러났다. 미국 내 13~19세 에이즈 감염자 중 69%와 20~24세 감염자 중 56%가 흑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적으로도 흑인 인구밀집지역인 남부지방에 에이즈 발병률이 높았다.

2001~2006년 다른 지역의 에이즈 감염률은 떨어지거나 유지된 반면 흑인이 밀집한 앨라배마·조지아·켄터키·루이지애나 등 남부 17개 주에서는 에이즈 감염률이 10%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흑인이 밀집한 미 남부지역의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성교육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에이즈 감염을 막기 위한 적절한 교육과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약품이 많이 개발됐지만 대부분이 고가여서 흑인들이 쉽게 복용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에이즈 퇴치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필 윌슨은 "성별·성적취향·계급·학력·지역 등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흑인들이 에이즈에 많이 감염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에이즈가 백인 동성연애 남성들의 병이라는 잘못된 정의로 흑인들은 에이즈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아시아 경제 : 2008.07.25)

에이즈 검진대상, 성 접촉없는 '동거가족' 제외

감염인의 동거가족까지 포함했던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검진대상자가 배우자 및 성 접촉자로 한정된다. 또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무적인 정기진료가 사라진다. 정부는 26일 오전 힌송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해 법률 28건, 법률시행령 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에이즈의 특유의 임상증상으로 '주폐포자충폐렴', '결핵' 등 발생 빈도가 높고, 사망률이 높은 기회감염 및 기회 질환으로 바꿨다. 지금은 '카포시육종'을 대표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동양인에게 매우 드문 질환이다.

또한 검진대상자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감

세계 에이즈 사망자 2년째 감소 (UNAIDS)

세계의 에이즈 사망자 수가 에이즈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 속에 2년째 감소세를 보였다고 유엔에이즈 (UNAIDS)가 29일 밝혔다. UNAIDS가 세계 147개국의 보고를 근거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의 에이즈 사망자 수는 200만명으로 추산돼 2006년의 210만명에 비해 줄었다. 세계 에이즈 사망자 수는 1980년대 초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05년에 220만명으로 최고에 달했다.

에이즈 바이러스(HIV) 신규 감염자 수는 지난해 270만명 정도로 2006년과 거의 비슷했다. HIV 신규 감염자는 1996년에 350만명으로 정점에 달한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루에 7천500명 정도가 새롭게 HIV에 감염되는 셈으로, 성적 접촉이나 약물 사용 등이 감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HIV에 감염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지난해 3천300만명 정도로, 3분의 2가량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고 이들 중 60%가 여성이다. HIV에 감염된 채 사는 사람들의 수는 취약한 지역에서도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의약품에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생존 기간이 연장돼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있는 추세다.

UNAIDS는 전세계적으로 HIV 신규 감염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네시아, 케냐, 러시아 등 많은 나라에서는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HIV 예방과 치료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2008.07.30)

연인의 배우자 및 동거가족'으로 돼 있는 에이즈 검진 대상자를 질병전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동거가족을 빼고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로 한정했다.

감염인의 인권 침해적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도 순화했다. 개정령은 '감염자에 대한 진료 등'을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으로 순화하고, 감염인에 대한 정기적인 진료를 식제하는 등 인권 침해적 요소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해소에 기여하고, 감염인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해 감염인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투데이 : 2008.08.26)

엄마 에이즈라도 모유 수유 가능 15주 에이즈 약 먹으면 에이즈 발병률 '뚝'

에이즈 환자의 아기도 약만 살 먹으면 모유를 먹어도 괜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존스홉킨스 보건의대

와 말라위대 의대 연구진은 2년 동안 에이즈에 걸린 여성의 자녀 3016명을 살렸더니 아기가 15주 동안 에이즈 치료제를 예방 차원에서 복용하고 모유를 먹으면 엄마로부터 에이즈가 옮길 확률이 뚝 떨어졌다고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6월호에 발표했다. 7일 존스홉킨스 보건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연구진은 1주 동안 아기에겐 네비라핀(Nevirapine)을 하루 한 알씩, 지도부딘(Zidovudine)은 한번만 먹였다. 연구진은 이가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다. 한 그룹은 그대로 뒀다. 다른 한 그룹은 14주 동안 매일 네비라핀을 먹게 하고 마지막 그룹은 이와 함께 매주 지도부딘을 복용케 했다.

연구진이 임상시험 9개월 때 아기의 감염률을 비교했더니 1주 동안 약을 복용하면 10.6%였지만 네비라핀을 추가 복용하면 5.2%, 네비라핀과 지도부딘을 추가복용하면 6.4%였다. 또 세 그룹에서 모유 수유율은 비슷했지만, 추가로 약을 먹은 아기의 감염률이 현격히 낮아



신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은 세 그룹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두 약을 추가로 복용한 아기에게서 특정한 유형의 백혈구가 감소하는 '호중구감소증'이 더 많이 일어났다.

타하 E. 타하 박사는 "생후 6개월 까지 모유수유가 아기의 건강과 생존에 결정적이라는 것은 상식에 가깝지만 에이즈를 앓는 여성은 사신의 병이 자녀에게 이어질까봐 수유를 꺼린다"며 "적절한 약의 도움을 받으면 이 걱정에서 한숨 놓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국립보건원(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코메디닷컴 · 2008.09.02)

“에이즈감염자, 출원만으로 병역면제 가능” 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도 병무청에 직접 갈 필요 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3일 “에이즈 감염자도 중증장애인 과 마찬가지로 출원(出願)만 하면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병역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중”이라며 “감염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에이즈 감염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령개정 이전이지만 청장 지침에 따라 지난 달 6일부터 확인서를 제출하면 면제 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고 관할 보건소의 동의를 구해 대리인을 통해 제출해도 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HIV 감염자는 병무청 에이스 검사를 거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을 받거나 에이즈 감염사실 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병무청에 제출해야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6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즉 HIV 감염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번은 병무청에 직접 들려야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병무청 검사에서 HIV 양성자 통보를 받더라도 추가 검사와 관련 서류 제출 등으로 감염자의 불편을 초래한 것은 물론 확인서 발급 및 제출에 따른 심적 부담으로 감염자 본인이 이를 숨기고 입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년간 HIV 감염자로 판명돼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2004년 13명, 2005년 24명, 2006년 29명, 2007년 34명, 2008년 8월말 현재 24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에이즈 감염자의 불편을 줄이고 입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염자 명단을 공유할 것을 질병관리본부에 요구했으나 에이즈 예방법이 본인의 동의 없는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등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면서 “법령개정 추진 및 새로운 지침에 따라 에이즈 환자가 보다 쉽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 6월까지 복무 중 에이즈 감염자로 밝혀진 경우는 총 88명으로 올해에도 6월 현재까지 7명이 발견됐다.

(연합뉴스 · 2008.09.03)

시민단체, 의약품 '강제 실시' 인권위 진정, 에이즈 치료제 약가가 낮아 3년 동안 공급 안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2개 시민단체는 10일 '강제 실시'와 '검증 가능한 약제비 기준'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환자에게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HIV/에이스 치료제 푸제온은 2004년 한국에 사판 허가가 났지만 이를 공급하는 제약회사 로슈 측에서 약가가 낮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초국적 제약회사가 필수 의약품 공급을 거부할 때 이에 대응하는 어떤 방안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안은 강제 심사 뿐이다"라고 말했다.

▲건강 동 12개 시민단체는 10일 '강제 실시'와 '검증 가능한 약제비 기준'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강제 실시(Compulsory License)'는 제약회사가 갖는 특허권을 일시 정지하고 정부가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것으로 직접 제네라(동일 성분의 후발 약품)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 조항은 국제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규정(TRIPS)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가 필수약품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신청하기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정부는 무역 압력 등의 이유로 의약품 강제 실시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얼마 전 한국에 방문한 태국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소의 연구원과 회담을 가졌다"며 "태국에서는 지난 2006년 HIV 약제에서 시작해 현재 항암제를 포함한 총 7개 약에 대해 '강제 실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로 인해 제약회사들이 약가를 낮추는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태국 정부가 쉽게 '강제 실시'를 시행한 게 아니다"라며 "나국적 제약회사가 태국에서 회사를 철수하겠다고 위협하고 미국 무역대표부기 관세부과로 위협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태국 정부는 제약회사보다는 환자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밀어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 회견을 마친 후 이 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진정서는 조사권익 행사를 거쳐 빠르게 두세 달 안에 정부에 대한 권고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약가를 낮춰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했으나 정부는 유행성 치료제인 허셉틴의 의료보험 범위를 넓히는 데 그쳤고 약가는 내리지 않았다.

(프레시안 : 2008.09.10)

2012년 국내 에이즈 감염자 1만 명 된다

국내 에이즈 환자가 3~4년 후 1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건당국과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에이즈 감염자는 2007년에 5,323명이지만 1년에 평균 1,000여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는 추세로 미뤄볼 때 2012년쯤에는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가 집계한 '국내 에이즈 감염인 통계'도 이런 추상을 뒷받침한다. 통계에 따르면 1996년 622명이던 에이즈 감염자는 1999년 1,061명, 2002년 2,005명, 2004년 3,149명, 2006년 4,579명, 2007년 5,323명으로 증가했다. 연간 신규 감염자 수도 2000년 이전까지 평균 100명이었던 것이 2006~2007년엔 각각 750명, 744명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이미 국내 에이즈 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세브리스병원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는 "보고 안된 감염자, 에이즈에 감염되고도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를 합치면 에이즈 환자가 1만 명 이상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에이즈 환자가 크게 늘고 있으나, 치료는 국제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국제에이즈치료의사회가 한국을 포함한 세계 18개국 3000여 명의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형식 인식도 조사'를 보면, 한국 환자들이 에이즈 치료를 마루거나 포기하는 비율이 높았다. 전세계 응급자약 20%가 '에이즈 처방 치료를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나, 우리나라는 25%가 치료 경험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약으로 나올 병이 아니라서 ▲치료 부작용이 심해서 ▲에이즈 환자라는 것이 알려지기 원치 않아서 ▲치료비 감당이 안 된다 등이었다.

김준명 교수는 "복용량과 복용 횟수가 많아 에이즈 약을 끊어버리는 환자가 많았지만, 최근엔 복용이 간편해서 소기에 익만 꾸준히 복용해도 수명에 영향을 안 미칠 정도가 됐다.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웹스조선 : 2008.09.30)